

Hankook Technology Group

[산업]
한국타이어그룹
그룹 사명 변경
'기술 혁신기업' 새출발
06



Life

[바이오]
이대서울병원
23일 개원
첨단 기술 접목
L2



‘학교체육관서 운동해요’ 서울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범지역 선정, 7월부터 개방·운영
내년까지 전 자치구로 사업 확대
시설 개·보수비, 안전관리비 등 지원



서울시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시설 개·보수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유투이미지

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학교 체육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시설 개·보수비, 학교 안전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이달 중 자치구 수요조사를 실시해 시범 지역 1~2곳을 선정하고 7월부터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운영한다. 내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해당 사업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올해 총 5억797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금천구, 종로구에서 3개 학교가 참여했지만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해당 사

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학교들은 안전·보안 문제, 시설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교내 체육 시설 개방을 거부했다.

이에 시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 측의 부담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개방시간에 시설 관리자를 배치해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학교 보안을 강화하고 외

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또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해 학교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파손과 상해 사고에 대비해 주최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 학교 측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서울시의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1.28㎡로 전국 평균인 4.05㎡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이 향후 생활권에서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로 공공체육시설(49.8%)과 학교체육시설(7.9%)이 각각 1위와 3위로 꼽혔다.

그러나 서울시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교육부의 ‘시·도별 학교체육시설 보유 및 개방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학교체육시설 개방률은 66%로 전국 평균(72.8%)에 한참 못 미친다.

시는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학교 측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치구와 주민 체육회 등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학교장을 방문·면담해 사업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고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남기연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논문에서 “학교체육시설을 명시적으로 공공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장은 시설을 개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개방을 피하고 있다”며 “개방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를 가지고는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힘든 점도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현재와 같이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여부와 범위 등을 학교장이 재량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등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또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요구되는 인력의 인건비나 시설 유지 비용 등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종로 베니키아 호텔, 청년주택으로 ‘변신’

동묘역에 238가구 공급

지하철 1호선 동묘역에 자리한 ‘베니키아호텔’이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변신한다. 오는 2020년 1월 입주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9일 종로구 송인동 207-3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송인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업무용 사무실과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한 이후 첫 사례다.

베니키아호텔은 지하 3층~지상 18층, 연면적 9515.87㎡, 총 238세대 규모로 지난 2015년 12월 건립됐다.



종로구 베니키아호텔 투시도. /서울시

시는 기존 호텔 객실 238실을 그대로 청년주택으로 전환한다. 신혼부부용 주택 2호를 제외한 나머지 236호는 직장인과 대학생을 위한 1인 가구용 주택으로 조성된다. 지하 1~2층과 지상 2층에는 체력단련실, 북카페 등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들

어선다. 관할 구청인 종로구에서 건축 신고 절차를 마치고 오는 하반기 공사를 시작한다. 2020년 1월 준공 후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9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건축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즐거움 모내기 체험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농협 농업박물관 야외농원에서 미동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세운상가 일대 ‘도시기술장’ 연다

상가 입주민 직접 만든 물건 판매

서울시는 10~11일 메이커시티인 세운-청계천-을지로 일대에서 ‘2019 도시기술장’ 축제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도시기술장은 ▲기술+예술+마켓 ▲열린 작업장 ▲스텝 투어 ▲글로벌 포럼 ▲상가 캠페인 등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기술+예술+마켓에서는 세운감사대제전, 기술장, 예술장, 오락장, 식품장을 만나볼 수 있다. 상가 입주민이 셀러로 참여해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한다. 세운감사대제전과 기술장에서는 세운



상가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카메라 용품, 오락기, 3D 프린터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열린작업장은 세운상가 일대 상인의 점포와 기술자의 작업공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술자의 도구와 장비, 오래된 점포가 가진 시간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누

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된다.

글로벌 포럼은 서울시립대 세운캠퍼스와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의 주최로 세운홀에서 열린다. ‘서울 도심제조업 연구의 성찰과 전환’, ‘도심제조업의 혁신: 스마트팩토리’를 주제로 관련 세션과 토론이 진행된다.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받는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기술장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2019 도시기술장” 축제에 지역 상인·장인·메이커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2030청년, 어버이날 지출 ‘부담’

자기진단 효도점수 평균 56점

경기도내 2030 청년들은 자신의 효도 점수를 ‘56점’으로 평가하며 어버이날 등 기념일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일자리플랫폼 잡아바(www.JOBaba.net) 회원 6,369명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9일 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6.1%(5,490명)가 어버이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선물과 용돈 등 경제적 지출(63.7%)’, ‘선물과 인사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23.2%)’ 등을 꼽았다. ‘자신의 효도점수를 평가한다면?’이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23%(1,655명)가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하, 20.9%(1,335명)가 50점, 16.3%(1,038명)가 60점 등으로 응답해 평균 56점을 기록, 비교적 낮은 점수로 진단했다.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8.8%(3,112명)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이유로 ‘생활이 바빠서’라고 답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드러냈다. 가정의 달 기념일 적당한 평균지출액에 대한 설문에는 49.4%(3,154명)가 ‘10~20만원’, 34.8%(2,220명)가 ‘20~30만원’이라고 답했다.

또한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에는 44.5%(2,838명)가 ‘가족여행’을, 41.2%(2,626명)가 ‘부모님과 함께 식사 또는 외식’을 꼽았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5월 8일부터 잡아바 홈페이지에 가정의 달 기념 특집 테마관 ‘구해조 잡아바즈’를 오픈한다. 테마관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초연금 등 생활지원정책과 신년준을 위한 구직·교육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